

한지 위에 깃든 군자의 마음

《慎獨書懷》

한시·글운호 이진호  
서예 경재 임관혁

**어둠이 길어지는 계절,  
마음은 안으로 깊어진다.**

11월의 빛은 짧아지고, 어둠은 길어진다.  
낮의 끝이 서둘러 오고, 아침의 시작은 더디게 온다.  
하루의 리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가며,  
인간의 마음도 자연스레 내면을 향한다.  
이 계절은 침묵을 닮아간다.  
모든 생명이 속도를 늦추고, 생각이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떠오른 한 구절이 있었다.

“君子慎其獨也.”

군자는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삼간다.

『중용』의 한 문장이다.

이 구절을 한지 위에 옮긴 서예 작품을 마주한 것은, 그런 계절의 전환기다.

서예가 敬齋 任寬赫(경재 임관혁) 선생의 작품이다.

君子慎其獨也

乙巳仲秋錄中庸文句敬齋任寬赫



### 한지 위의 숨결 - 신독(愼獨)의 시작

한지는 묵향을 머금고 숨 쉬는 재료다.

섬유의 결이 살아 있어, 붓끝의 압력과 속도를 따라 먹빛이 미세하게 번지고 멈춘다.

그 번짐은 감정의 흔적이자, 마음의 호흡이다.

임관혁 선생의 「君子愼其獨也」는 바로 그 호흡의 서예다.

붓은 단단히 눌리되 거칠지 않고, 먹빛은 질되 답답하지 않다.

‘愼’ 자의 心은 힘 있게 눌러져 신중의 무게를 전하고,

‘獨’ 자의 犮은 홀로 길게 뻗어나가며 존재의 결연함을 품었다.

마지막 ‘也’는 살짝 열린 마무리로 끝나, 문장의 종결이 아닌 여운처럼 남았다.

그 여운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등불의 잔향 같았다.

그 빛이 신독의 시작이었다.

### 필획과 여백, 그 사이의 초심

筆重如山 靜若林

“붓의 무게는 산과 같고, 고요함은 숲처럼 깊다.”

한지 위의 먹빛은 결코 숨을 감추지 않는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묵향이 남고, 그 향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번진다.

서예가는 그 번짐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으로 그 흐름을 느끼며 멈춘다.

그 멈춤이 곧 ‘愼’의 행위이며, 그 고요함이 ‘獨’의 의미다.

서예가의 마음이 안정될수록, 획은 단단해지고 여백은 넓어진다.

그 여백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초심이 머무는 공간이다.

한지의 숨결과 묵향의 번짐이 만나 보이지 않는 사유의 호흡을 완성한다.

### 한시 《慎獨書懷 新독서회》

이 작품을 바라보며 나는 한 편의 시를 지었다.

서예가의 묵향 속에 깃든 신독의 정신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마음의 여정에 담았다.

#### 慎獨書懷 (신독서회)

筆重如山靜若林 (필중여산정약림)

붓의 무게는 산처럼 무겁고, 고요함은 숲처럼 깊은데,

慎情留墨養初心 (신정유묵양초심)

감정을 삼가 먹빛에 머물며 초심을 기른다.

孤燈照影無人處 (고등조영무인처)

외로운 등불 아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獨守君誠萬古襟 (독수군성만고금)

홀로 군자의 진실한 품을 지키니, 그 품격은 만고에 이어지리라.

이 시는 서예의 철학과 신독의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기록이다.

‘慎獨’은 내면의 절제를, ‘獨守’는 고독 속의 존엄을, 마지막 ‘萬古襟’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품격을 상징한다.

心에서 情으로, 情에서 襟으로 마음이 깊어져 품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곧 군자의 길이다.

### 신독 - 보이지 않을 때의 품격

‘慎獨’은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다.

신독은 존재의 윤리이며,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끝없는 연마의 과정이다.

세상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기록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인간은 자기 내면을 숨길 공간을 잃어버렸다.

신독은 바로 그 잃어버린 공간을 되찾는 행위이다.

보이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군자가 지녀야 할 품격이리라.

임관혁 선생의 작품은 그 품격을 담고 있다.

한지의 결 위로 묵향이 잦아들고, 붓끝의 흔적이 마치 인간의 마음결처럼 남아 있다.

강한 힘의 과시도, 의도된 균형도 없다.

다만 ‘홀로 고요함’이 한지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 《禮記·中庸》 제1장

君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삼가며,  
남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한다.  
감춰진 데서 진실이 드러나고,  
사소한 일 속에서 인격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삼간다.”

### 맺음 - 어둠을 비추는 한 점의 마음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진실이 드러난다.  
신독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다.  
한지 위의 먹빛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번져가는 마음의 결이다.

임관혁 선생의 「君子慎其獨也」는 단지 글씨가 아니라 한 인간의 철학이다.  
한지의 질감과 묵향의 침묵이 만나 인간의 품격과 고요의 미학을 기록했다.

나는 그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붓끝의 숨결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마음의 빛은 더욱 또렷해진다.”

그것이 바로 신독의 길이며, 군자의 마음이 한지 위에 새겨지는 이유였다. 

#### 한시·글 윤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 서예 경재 임관혁(敬齋 任寬赫)

- 신동아국제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소품미술대전 초대작가
- 각종 공모전 20여 회 수상
- 동방대 서예 문인화 과정 12기 수료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